하필이면 휘발유 저유소 인근에…

나주시 '유물 보관센터' 부지 선정 논란

주민들 "유조차 하루 30여대 통행 불안…이전해야"

나주시 영산동에 신축중인 '나주출토유물 보관센터' 인근에 대형 휘발유 저유소가 자리하고 있어 자칫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호남지역은 영산강유역의 고대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출토된 유물의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해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나주출토유물 보관센터'는 1만8천㎡의 부지에 연면적 4천400㎡의 3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현재 전체 공정의 30%가량이 진행된 상태로 오는 9월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나주출토유물 보관센터'의 경우 부지 경계선과 연접해 120만ℓ의 휘발유를 저장하는 저유소가 영업중에 있어 자칫 출토된 문화재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소실될 우려가 있어 사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휘발유 저유소의 경우 저장용량 등을 감안하면 인근 100m 가량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인 만큼 근본적으로 향후 저유소를 옮기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관련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과정에 이 같은 사항이 사전에 전혀 검토되지 않아 부지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부지의 경우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로 지반 다짐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바로 인접에 휘발유 저유소를 비롯한 연탄공장과 폐차장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 있어 '출토유물 보관센터'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

J모 (48·나주시 다시면) 씨는 "나주시에서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가장 집중된 곳에 문화재 보관센터를 설립한 것은 졸속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며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도 "휘발유를 실은 대형 기름탱크 트럭들이 하루에도 30여대 이상씩 통행하고 있어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며 "자칫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나주시에 이전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전통미 살린 한옥 신축 바람

올 4개 마을에 69동 신축…내년 1~2개곳 추가

郡 마을당 사업비 3억 지원 등 민박 활성화키로

화순군에 전통미를 살린 한옥이 활발하게 신축되고 있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이서면 남계마을(10동)과 이서면 야사마을(15동), 산사마을(20동), 도곡면 효산마을(24동) 등 4개 마을에 모두 69동의 한옥을 짓기로 했다.

현재 7개 동은 건축이 완료됐고, 18개 동은 건축 중이며, 나머지 산사마을과 효산마을 44개 동은 올해 안에 착공, 완공된다.

공모를 통해 한옥신축 대상자가 모두 선정된 상태로, 한옥마다 손님방을 마련하도록 해 민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옥신축 대상자에게는 도비와 군비 각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보조하고, 3천만원(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은 융자 지원한다.

또한 마을당 3억원의 기반조성 사업비를 지원, 한식형 담장조성, 체험 및 편의시설확충 등 마을의 전통을 살리고 미관을 개선해 고풍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의 외형은 전통한옥 기법을 살리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계획해 전통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현대화된 실용적인 생활한옥으로 건축하고 다락방과 손님방 설치 등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도록 건축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웰빙형 주택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한옥은 우리조상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통을 되살리고 계승·발전시킴과 아울러 도시민 유치 및 농촌 전통테마마을로 육성해 살기 좋은 마을,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복마을은 한옥민박, 농촌체험, 지역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내년에도 한옥마을 1~2곳을 선정하는 등 한옥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강진 "독립만세" 재현

내달 4일 기념탑 일원

지난 1919년 강진에서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강진문화원(원장 김규식)은 4월 4일 오전 10시 강진읍 남포마을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에서 기념식을 갖고 강진 버스터미널까지 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대규모 시가행진을 펼친다.

또 강진 5일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도 항일 독립투사' 집회를 갖고 4월 5일부터 10일까지 관내 각급학교 부대행사로 각종 글쓰기 사생 삼일정신 훈화교육 등 교과별 교내행사를 진행한다.

강진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강진 장날인 4월 4일 오승남 선생을 비롯한 26명의 의사(義士)가 주동이 돼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김규식 강진문화원장은 "4·4 강진독립만세는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선열들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군민화합을 이루는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장흥 특산 표고버섯 종균 접종 한창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1호로 등록됐다.

장흥군 부산면 용두리 마을주민들이 30일 참나무에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하고 있다. 장흥 표고버섯은 지난 2006년 11월 /장흥=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장흥 교통 사망사고 19건중 8건이 음주"

음주율도 60.5% '도내 최고'…음주문화 개선 절실

장흥지역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 주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사망사고 19건 가운데 8건(42.1%)이 음주사고로 나타났다.

음주에 의한 사망사고 8건 가운데 7건이 보행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가다 음주차량과 충돌해 발생했다.

특히 야간에 길거리 등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는 주치자 112 신고건수가 월 평균 1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도 장흥지역의 음주율은 60.5%(전남 평균 53.4%)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장흥지역 음주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지난 2006년에 개설된 한우 소고기 전문장소인 '장흥읍 토요시장'을 찾는 인파가 부쩍 늘고 키조개, 매생이를 비롯한 장흥 연안에 생산된 각종 해산물로 인한 먹거리 식당이 늘어나 음주 소비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흥경찰서 고재만 생활안전과장은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장흥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 지역 정서함양 차원에서 우선 상습적인 음주행위부터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나주 기능성 물 논란

S회사 개발 '기능성 물' 싸고 피부질환 효과 "있다" "없다"

"정말로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인가?"

나주와 경남 함양에 공장을 둔 S회사가 개발한 기능성 물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이 회사가 개발한 기능성 물은 피부에 바르면 아토피 등이 치유된다는 '세신수'와 탈모를 방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발모수'이다.

자연수를 고도의 정제 과정을 통해 생성했다는 이 회사 제품은 1ℓ당 16만원의 고액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효험을 봤다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는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 회사를 '봉이 김선달' 쯤으로 평가하는 등 불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성분이 물과 미세한 염분 뿐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개발한 기능성 물이 각종 피부질환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조속히 전문 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된 상품으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봉사도 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얻고'

광산구 공무원 복지동아리 '희망징검다리' 화제

광주 광산구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봉사와 사업 아이템 발굴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동아리를 결성해 화제다.

광산구 가정복지과 공무원들은 지난 2월 최영숙 과장을 비롯한 14명 전원이 참여하는 '희망징검다리'를 결성했다.

여성 및 다문화가정·드림스타트·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면서 처한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하고자 지난 1월 신설된 부서다.

신규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업무를 최단시간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희망징검다리'를 구성하게 됐다.

매월 1회 학습과 봉사를 원칙으로 삼은 '희망징검다리'는 업무연찬과 관내 복지시설 방문 봉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동안 이것저것 기대했다가 실망만 컷기에 큰놈을 보고도 혹시나 반신반의 하여 사용해 봤더니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용즉시 불끈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니 꿈인지 생시인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발기부전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해도 피부 같은 촉감에 탑팽이 모양 같은 실리콘이 처음 보는 것이며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티나게 날개 돋쳐 나가고 있다.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회춘의 끔. 파워마카 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구매시 핫나경 서적이 없는 것은유사품입니다. (주)글로벌핫나경 www.핫나경.kr 99,000원 통신판매신고증 제11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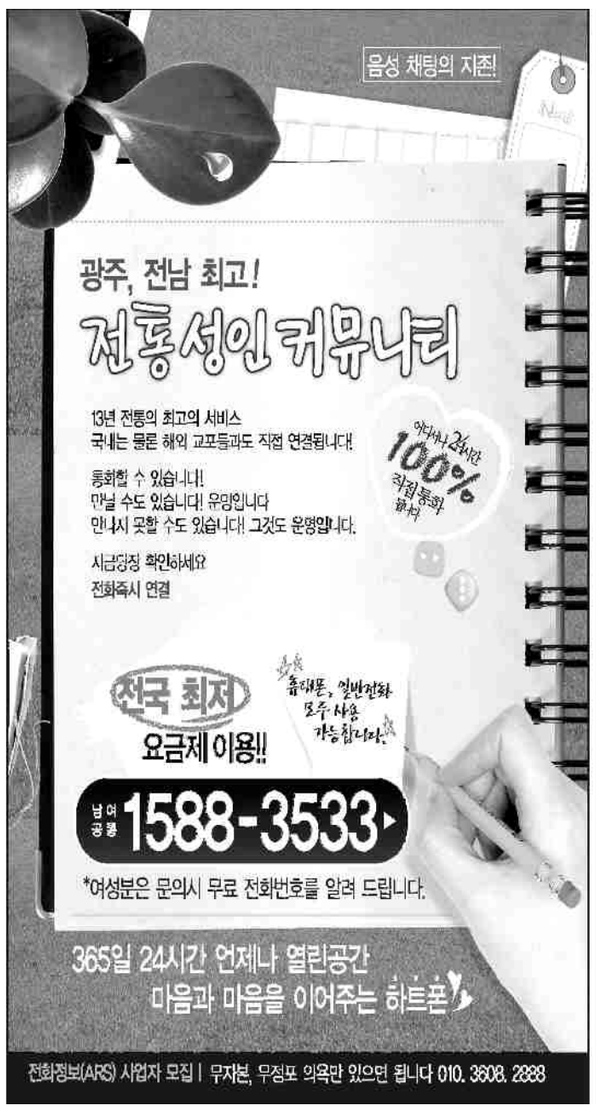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 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www.핫나경.kr (G-FLOW)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의 최대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른...분들의"기" 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 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www.핫나경.kr

상담전화 농협 301-0036-8883-71 (주) 글로벌 핫나경 통신판매신고증 제 1188호
1577-4101 010-8952-4114
1588-4102 010-8558-4114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알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1시간 전에 1정을 복용하면 1~5까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전혀 안되시는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발기가 잘되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정을 복용후 1~5분 발기가 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정(반) 나누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주문즉시택배 / 무료배송
상담주문 02)2231-0533
010-7190-8138 / 010-7770-8138
농협 707019-56-138536(김삼환)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